출장 보고서
2026. 10. 8. ~ 10. 12.
미국 칼스배드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
제65차 콘퍼런스 참석 및 사례 발표

2026. 11. 6. (금)

송 인 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곽 지 용 전문연구원
임 효 지 전문연구원

I. 출장 개요

1. 목적

□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교육 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이하 CEE)가 주최하는 제65차 교육자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경제교육 콘텐츠 및 방법론, 경제교육 동향 등 최근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미국을 포함한 각국 경제·금융 교육 관련 기관과 학계가 참석하는 콘퍼런스임.

□ 또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금융교육 기관인 San Diego Center for Economic Education at Cuyamaca College 및 Californi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개인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교육 효과 제고 방안, 공공기관의 역할 및 경제교육과 개인금융교육의 연계 방향 등을 파악하고자 함.

2.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2.(월)

□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 The Westin Carlsbad Resort & Spa

3.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장자: 송인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외 2인

순번	이름	소속	직위
1	송인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실	경제교육·정보센터소장
2	곽지용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시민사회교육팀	전문연구원
3	임효지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학교경제교육팀	전문연구원

□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일정
2026-10-8(목)	KST	16: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UST	17:10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도착
		19:00	콘퍼런스 개최 장소 이동 및 체크인
2026-10-9(금)	UST	07:00 ~ 17:15	1일차 기조연설, 콘퍼런스 개별 세션 참가 및 인터뷰
2026-10-10(토)	UST	07:15 ~ 13:00	2일차 기조연설 및 콘퍼런스 개별 세션 참가
		17:00 ~ 18:30	경제교육 관계자 면담
2026-10-11(일)	UST	07:50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출발
2026-10-12(월)	KST	17:20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Ⅱ. 주요 사항

1.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 및 제65차 교육자 콘퍼런스 소개

□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이하 CEE)는 미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임.

○ CEE는 1949년 설립되었으며 뉴욕 소재 본부와 49개 주(州) 경제교육협의회, 300여 개 경제교육센터로 구성된 미국 최대의 경제·금융 교육 유관 기관임.

○ CEE는 경제교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in K12 Economics)과 개인금융교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바탕으로 교사 연수와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경제·금융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에 주력

○ CEE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교육 관계자들이 경제·금융 교육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경제교육 및 금융 문해 분야에서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활동과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기회를 마련함.

- 경제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1년부터는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국제 교류 회의를 운영하여 국가별 경제·금융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제65차 교육자 콘퍼런스는 캘리포니아 경제교육협의회(Californi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주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Carlsbad)에서 개최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작가・저널리스트・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 중인 『Planet Money』의 저자 Alex Mayyasi의 기조연설을 진행

○ 그 외에도 경제・금융 교육 사례 및 콘텐츠 등 45개 참여형 세션(실습형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

< CEE 등록 및 기조연설 사진 >



2. 주요 인터뷰 내용

☐ San Diego Center for Economic Education at Cuyamaca College(SDCEE)

○ 일시: 2026. 10. 9.(금) 15:30 - 17:30

○ 면담 대상: Anthony Zambelli

- Director, San Diego Center for Economic Education at Cuyamaca College
- Professor Emeritus, Cuyamaca College

○ 주요 논의 내용

가. 기관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특징

- San Diego Center for Economic Education at Cuyamaca College(이하 SDCEE)는 2006년부터 Cuyamaca College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기관으로, 학생・교사 대상 경제교육뿐 아니라 가족, 대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학년 수준, 사전 지식, 직업적 역할, 지역사회 및 문화적 배경, 교육 환경 등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으며 교사 대상 무료 워크숍 및 웨비나를 제공함.
-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에 반영함.

나. 캘리포니아주 개인금융교육 의무화 정책 대응

- (정책 배경) 캘리포니아주는 학교 및 교육구 등에 따른 개인금융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고등학교 개인금융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장 과제)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자격을 갖춘 교사 확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선정, 졸업 요건 반영, 교사의 지식 및 경험 수준의 차이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
    - 특히 개인금융 과목은 사회과학, 경영, 가정, 수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교사가 담당할 수 있어 교사별 금융 지식과 경험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성 개발이 중요함.
- (SDCEE 대응) SDCEE는 지역 교육청, 교육구 및 경제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개인금융 과목 개설과 교육자료 선정,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샌디에이고 및 임페리얼 카운티(San Diego and Imperial Counties)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 준비 수준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함.
    - 고등학교 진학 이전부터 경제·금융 기초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학생 대상 경제·금융교육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교육과정에서 관련 개념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음.

다. 경제학적 사고와 개인금융교육의 연계

- (교육 철학) SDCEE는 개인금융교육에서 ‘경제학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keeping the economics in personal finance)을 강조하며, 단순한 금융 지식의 전달보다 인센티브, 희소성, 상충관계, 기회비용, 위험 및 미래의 결과 등 경제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금융 의사결정의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실생활 연계) 경제학적 개념을 단순화하여 전달하기보다 실제 경제활동의 맥락에서 의사결정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
  - 특히 이론적 모형과 실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경제학적 개념을 현실의 경제활동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의사결정 중심 교육) 특정한 금융 행동을 권장하기보다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른 비용·편익 및 미래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예를 들어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며 기회비용과 한계편익·한계비용 등의 경제학적 개념을 학습하거나, 노후 대비 투자 외에도 대학 진학, 직업교육, 부채 상환 등도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사례로 제시

라. 이민자 대상 경제·금융교육 운영 경험

- (학습자 특성) SDCEE는 중남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출신 국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 경험과 금융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함.
- (교육 내용) 일부 이민자의 경우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현금을 가정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와 신뢰 형성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에 은행 이용과 예금의 안전성, 적절한 대출 활용, 소득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저축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함.

- (교육 설계) 기존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금융 경험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Californi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CCEE)

○ 일시: 2026. 10. 9.(금) 15:30 - 17:30

○ 면담 대상: Joshua Mitton

- Chief Program Officer, Californi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 주요 논의 내용

가. 기관 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특징

- California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CCEE)은 1959년 설립된 비영리 경제교육기관으로,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의 경제·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교사 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자료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교사를 통한 경제·금융교육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자료를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수업 계획과 교사용 지도서 등을 제공하여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함.

나. 개인금융교육 교수·학습 지원 자료(CAPFIT) 개발

- (개발 배경) CCEE는 캘리포니아주의 고등학교 개인금융교육 의무화에 대응하여 교사들이 개인금융 과목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교육 교수·학습 지원 자료(California Personal Finance Instructional Toolkit, CAPFIT)를 개발함.

- (과정 구성) CAPFIT은 16주, 총 80차시로 구성된 한 학기 교육과정으로 금융 의사결정의 기초, 소득 창출 및 관리, 신용·대출, 위험관리, 장기 재무계획 등 5개 단원으로 구성

- 금융 지식을 주제별로 나열하기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돈을 벌고 관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신용과 대출에 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미래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등 학생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며 마주하는 5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

- (교육 설계) 금융 지식의 암기보다 실제 금융 상황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하는 역량을 강조함.

  - 학생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실생활 중심의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기회비용과 상충관계 등 경제학적 개념을 금융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함.

- (교수·학습 지원) CAPFIT은 진도표(Pacing Guide)와 교사용 지도서(Teacher Guide)를 제공하여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함.

  - 진도표는 차시별 학습 주제와 관련 교육기준을 제시하고 각 차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수업자료, 추가 활동자료, 영상 및 학습도구 등을 연계하여 제공함.

  - 교사용 지도서는 단원별 학습 목표, 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교사용 배경지식 등을 수록하여 개인금융교육 경험이 부족한 교사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뷰 모습 >



3. 주요 세션 정리

가. 동시 운영 세션(Concurrent Session)

□ Opening Plenary - Keynote Speaker with Emcee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경제교육) 추상적인 경제 개념을 실제 인물의 경험과 의사결정, 일상생활의 사건과 연결하여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발표자는 경제 전문 팟캐스트인 Planet Money의 취재·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8가지 스토리텔링 전략을 제시함.

<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8가지 스토리텔링 전략 >

1.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경제 이야기 구성	5. 독특한 사례를 통한 경제 개념의 명료화
2. 2인칭 서술을 통한 학습자의 상황 몰입 유도	6. 반례를 통한 경제 원리의 적용 범위 탐색
3. 은유와 비유를 활용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7. 다양한 경제 분야의 모델 제시
4.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사례를 활용	8.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한 경제 개념의 전달

○ (주요 활용 사례) 실제 인물과 예상 밖의 사례, 직접적인 거래 경험 등을 활용하여 경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소개

- 자동화기기(ATM) 도입 당시 은행 직원의 경험을 통해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식품은행의 가상화폐와 입찰 방식 도입 사례를 통해 시장의 자원배분 원리를 제시함.

- 학습자가 고대 로마 원로원의 일원이 되어 수로 건설을 누구에게 맡길지 판단하는 상황을 제시함. 이를 통해 역사적 상황 속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당시 기업과 조직이 등장한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함.

-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을 낮춘 후, 구매자의 관심과 거래 가능성이 달라진 경험을 제시함. 이를 통해 수요·공급과 가격 조정의 원리를 실제 거래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함.

□ Leveraging Google to Create Engaging Lessons

○ (발표자) Tom Garrard, Teacher, Lompoc High School

○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참여형 학습) Google Classroom, Google Docs, Google Sheets 등 무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경제교육 활동 사례를 제시

- Google Sheets의 조건부 서식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개념 관련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의 단서를 제공하는 디지털 방탈출 활동과 교내에 배치된 QR코드를 따라 이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보물찾기 활동을 소개

○ (선택형 스토리 활동) Google Forms의 응답별 분기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의 선택에 따라 후속 질문과 결과가 달라지는 ‘Choose Your Own Adventure’ 활동의 운영 방식을 안내함.

- 노동의 대가, 타인에 대한 지원 의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을 주제로 경제체제와 경제적 가치관을 탐색하도록 구성함. 특히 ‘타인을 도울 의무’와 ‘자발적인 도움’처럼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차이를 발견하고 토론하도록 유도함.

- 학생들이 소그룹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선택과 판단 근거를 비교한 뒤, 개인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선택 근거를 설명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도록 구성

○ (활동 설계) 디지털 활동은 초기 제작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존 자료를 다른 경제 개념이나 주제에 맞게 수정·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선택형 활동은 질문별 이동 경로를 사전에 설계하고, 정답 판정과 링크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Money Decisions Start Early: Engaging Activiti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 (발표자) Robin Palmer, Education and Marketing Specialist, University of Arizona’s Take Charge Today

○ (가치관 탐색 활동) 학생들이 가족, 경제적 안정, 교육, 행복, 건강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 및 금융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활동을 소개

- 일상적인 선택과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구분하고, 선택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숙고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함.

○ (소득·지출 활동)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구분하고,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짐.

- 개인의 재능과 관심사를 활용한 소득 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 5가지를 선정하여 각 활동에 비용이 직접 발생하는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지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구분함. 이를 통해 행복과 지출의 관계를 탐색하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소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봄.

○ (선택형 토론 활동)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Would You Rather?)’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 선택에 따라 교실의 서로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카드를 제시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의 선택 근거를 비교 및 토론함. 이를 통해 비용, 시간, 편의성, 선호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이 가능함을 이해하도록 함.

□ Simulating Why Institutions Matter for Economic Growth

○ (발표자) Megan Kirts, Executive Director, Econiful

○ (경제성장 요인 탐색) 국가 간 경제적 번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활동을 소개

- 학생들이 천연자원 보유량, 수상교통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이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예측하고, 실제 국가별 자료를 통해 이를 검토하도록 함. 천연자원 보유량과 소득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들을 비교하여 천연자원만으로 경제적 번영을 설명하기 어

렵다는 점을 학습함.

○ (창업 시뮬레이션 활동) 서로 다른 제도적 환경을 가진 가상의 국가에서 창업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제도의 차이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도록 함.

- 참가자들은 트럼프 카드의 무늬와 홀짝에 따라 국가 유형을 배정받고 사업 인허가, 법적 분쟁, 세계 경기침체 등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별로 다른 결과를 경험하며 번영 점수(Prosperity Points)를 획득하거나 잃음.

○ (활동 결과 토론) 참가자들의 최종 점수는 10~30점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결과가 달라진 원인과 활동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공유

- 명확한 규제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부패와 불투명한 절차, 행정 지연 등은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음을 논의함. 발표자는 활동 후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에서 경험한 제도적 차이를 경제 개념과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실제 사례 연계) 가상 국가에서 경험한 제도적 환경을 실제 국가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고, 관련 연구와 연결하여 학습 내용을 확장함.

- 국가별 제도적 차이와 1인당 GDP 수준을 비교하고, 제도와 경제적 번영의 관계를 다룬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및 경제학자 인터뷰 영상 등을 후속 학습자료로 활용함.

□ Behavioral Economics in Personal Finance: Classroom-Ready Lessons and Activities

○ (발표자) Anthony Zambelli, Director, San Diego Center for Economic Education at Cuyamaca College

○ (행동경제학의 활용)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과 실제 경제적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고, 소비・저축・투자 결정에 심리적 편향과 감정, 습관 등이 미치는 영향을 소개

- 학생들이 일상 속 소비 경험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둠.

○ (현재 편향과 손실회피)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현재의 작은 보상과 미래의 더 큰 보상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보상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의 어려움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또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사례를 통해 손실 상황에서 기존 선택을 유지하려는 행동과 손실회피 성향을 다룸.

○ (가격 인식과 소비 행동) 상품의 가격과 할인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보여줌.

- 400달러짜리 재킷을 본 뒤 200달러짜리 재킷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인식하는 사례를 통해 기준점 효과를 설명함.

- ‘40달러 절약’, ‘마지막 기회’, ‘오늘만 할인’ 등의 표현을 통해 정보의 제시 방식과 희소성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

○ (심리적 회계와 기본 설정) 동일한 금액이라도 돈의 출처나 선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다룸.

- 근로소득보다 세금 환급금이나 선물로 받은 돈을 상대적으로 쉽게 소비하는 사례를 통해 심리적 회계의 특성을 살펴봄.

- 장기기증이나 퇴직연금 자동 가입 사례를 통해 기본 설정이 개인의 선택과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함.

○ (체험 활동)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교수·학습 자료를 소개

- 서로 다른 가격 정보를 먼저 제시한 뒤, 동일한 상품의 적정 가격을 추정하도록 하는 기준점 효과 실험과 물건의 소유 여부에 따른 판매 희망 가격과 구매 희망 가격을 비교하는 보유효과 실험 등을 제시

-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 결과와 그 이유를 비교 및 토론하며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편향을 확인하도록 구성함.

□ Economics for Empowerment: A New Approach to the High School Course

○ (발표자) Greg Fisher, Executive Director, California Association of School Economics Teachers

○ (경제학적 사고 중심 교육) 학생들이 경제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개인의 경제생활과 공공정책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고등학교 경제교육 접근법을 소개

- 경제교육의 핵심 목표를 목표, 자원, 선택으로 제시하고, 비용·편익 분석, 기회비용, 한계적 사고, 유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경제개념을 실제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함.

○ (의사결정 활동) '의사결정 앞치마(Decision-Making Apron)'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판단 근거와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및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검토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함.

- 학교 수업 시간이 주당 1시간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학업 보충, 진로·금융교육, 체육·건강교육 등의 대안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선택의 이유를 비교하도록 함.

○ (인적자본 개발) '인적자본 예산(Human Capital Budget)'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목표와 현재의 시간 사용을 연결하고,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함.

- 일주일 168시간을 학습·성장, 수면·회복, 여가·교류, 일상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시간 사용을 분석하고, 자신의 시간 배분이 목표 달성에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함.

- 이후 기회비용과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어떤 활동을 줄이고 늘릴지 판단하고, 한계적 사고를 적용해 구체적인 시간 재배분과 실천 목표를 수립하도록 구성함.

○ (공공정책 탐구) 경제학적 사고와 탐구학습을 결합하여 학생들이 정책의 목표와 유인, 비용·편익,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을 분석하고 근거

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책 대안을 토론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다룸.

- AI 규제, 관세 정책, 소득·자산 불평등 등의 사례를 활용한 탐구 질문지와 교사용 자료를 제시함.

□ Plenary Session: The Classroom is Where the Future Compounds

○ (복리와 장기 투자) 1센트가 매일 두 배로 증가하는 사례와 관련 영상을 활용하여 복리의 원리를 설명하고 소액이라도 일찍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여 장기간 꾸준히 축적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함.

○ (개인 경험 활용) 교사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모의 저축과 투자 경험 등 자신의 경험을 수업에서 공유하면 학생들이 금융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돈과 관련된 주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음을 설명

○ (학습자 맞춤형 교육) 금융교육은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사례를 소개

- 어린 학생에게는 신용카드·직불카드·상품권 등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실제 금융 의사결정과 유사한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등 학습자의 생활과 연계한 교육 방식을 제안

- 교실에서 돈을 벌고 저축·소비하며 예산을 관리하는 ‘My Classroom Economy’, 30년간의 투자 과정을 체험하는 ‘My Classroom Investor’ 등 실제 금융 의사결정을 연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함. 특히 실제 금전적 손실 없이 다양한 선택을 시도하고 그 결과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 포켓몬 카드 교환을 통해 국제무역과 시장에서의 가치 변화를 이해하고 교사의 실제 재무 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개인금융 의사결정을 탐색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제시함.

- 디지털 교육 도구는 학생의 수준과 수업 목표에 맞게 활용하되, 토론과 협력 활동 등 대면 학습과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설명

○ (교육자료 개발 및 협력) 학교, 가정,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교사 연수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업 자료를 개발 및 확보하고, 교사의 실제 수업 경험과 현장에서 나타난 학습상의 어려움 및 요구를 교육자료 개발과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함. 아울러 우수한 교육 사례의 공유·확산을 제안함.

□ Courtside Capital: Teaching Economics Through the WNBA

○ (발표자) Lynn MacDonald, Associate Professor/Co-Director, SCSU Center for Economic Education, St. Cloud State University

○ (프로그램 소개) 미국 여자프로농구리그(WNBA)의 성장과 티켓 가격, 선수 임금 및 사업 기회의 변화를 수요·공급, 노동시장, 예산 제약, 기업가정신 등의 경제 개념과 연결한 수업 사례를 소개함.

- 관중 수와 시청률 증가, 구단 가치 상승, 중계권 계약 확대 등 WNBA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구성함.

○ (티켓 가격 분석) WNBA 올스타전의 최저 티켓 가격이 2025년 66달러에서 2026년 354달러로 상승한 사례를 통해 가격 변화의 원인과 수요·공급 요인을 탐색하도록 함.

- 관중 수, 시청률, 상품 판매량 등을 수요 증가의 근거로, 경기 좌석 수와 경기 수, 구단 수 등을 공급 요인으로 제시

- 선수 엔젤 리스의 이적 발표 이후 애틀랜타 드림 경기의 평균 티켓 가격이 173달러에서 255달러로 상승한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추론하여 수요·공급 그래프로 설명함.

○ (선수 임금과 단체교섭) WNBA의 성장에 따른 선수 임금 인상과 2026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과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역할을 다룸.

- 리그 수익 증가, 선수들의 협상력 강화, 대체 리그의 등장 등이 임금 협상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이 선수들의 경제적 기여와 보상 수준을 분석하여 협상 과정에 참여한 사례를 제시
- 선수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등 노동시장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함.

○ (임금 배분 활동) 학생들이 구단 운영자가 되어 선수의 기량과 팀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면서 제한된 예산을 12명의 선수에게 배분하는 시뮬레이션 활동을 소개

- 기존 샐러리캡 150만 달러에서 시작해 새로운 샐러리캡 700만 달러, 슈퍼맥스 연봉, 신인 선수 연봉 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4단계 활동으로 구성
- 각 단계에서 선수별 임금을 다시 결정하고, 예산 제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를 비교·토론하도록 함. 또한 임금이 선수의 경제적 기여를 항상 반영하는지 검토하며 노동시장 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함.

□ My Classroom Investor: Disrupting Investing Education

○ (발표자) Sean Crossley and Nicholas Pascale, Program Managers, Vanguard

○ (프로그램 소개) Vanguard가 개발한 고등학생 대상 투자교육 프로그램 ‘My Classroom Investor’를 시연하고, 30년에 걸친 투자 과정을 가상으로 경험하며 장기 투자의 원칙과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방식을 소개

- 학생들은 가상의 인물을 선택하고 재무 목표를 설정한 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이후 경기침체와 주가 변동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경험하며 자산 배분을 조정하거나 기존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선택을 반복함.
- 실제 기업명 대신 과거 시장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한 가상의 투자상품을 활용하여 특정 기업의 주가 흐름이나 과거 수익률에 대한 선입

견을 줄이고,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 원칙에 집중하도록 함.

○ (프로그램 특징)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보다 재무 목표, 투자 비용, 자산 배분의 균형, 투자 원칙 준수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강조

- 학생들이 투자상품을 선택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마다 판단 근거를 기록하도록 하고, 교사가 이를 확인하여 토론과 피드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반드시 매매할 필요는 없으며, 장기적인 투자 목표에 따라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함.

○ (수업 활용 방안) 투자 시뮬레이션을 교사의 토론, 실제 경제 사례 분석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함.

- 학생들의 투자 결정과 판단 근거를 비교 및 토론하거나, 시뮬레이션에서 경험한 경기침체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등 실제 경제 사건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활동을 제안
- 단기적인 투자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투자 습관과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는 데 활용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단기 자금관리 등은 별도의 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Active Learning in High School Personal Finance: An Introduction to the New Keys to Financial Success Curriculum

○ (발표자) Andrew Hill and Meaghan Vitale,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 (프로그램 소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과 델라웨어대학교 경제교육·창업교육센터가 공동 개발한 고등학생 대상 개인금융교육 프로그램 ‘Keys to Financial Success’를 소개

- 재무 목표와 의사결정, 예산관리, 저축·투자, 신용, 위험관리, 주거 등 10개 주제의 총 48개 수업으로 구성되며, 교육자료와 교사 연수를 무료로 제공함.

- 경제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금융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함.

○ (활동・협력형 교수・학습) 실제 금융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협력형 교수・학습 방식을 강조함.

-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기보다 교사가 토론과 활동을 이끌며 금융 문제를 함께 탐색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임. 관련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금융 지식이 향상되고, 활동・협력 학습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의사결정 활동) ‘Credit Cards: Total Frenemy?’ 수업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활동을 소개

-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노트북 구매, 콘서트 티켓 구매, 자동차 수리 등의 상황을 검토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적절한지 ‘그렇다(Yes)’, ‘아니다(No)’,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포스트잇에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함. 이를 통해 구매 목적과 상환 능력, 이자・수수료 등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의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함.

○ (예산 수립 역할극 활동) ‘Todd and His REAL Job’ 활동에서는 등장인물의 소득에서 실제 생활비를 차감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관리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임.

- 월 약 3,500달러의 소득에서 세금, 주거비, 공과금, 교통비, 의류비, 여가비, 식비 등을 차례로 차감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함. 이를 통해 비상 자금과 미래 목표를 위한 저축은 지출 후 남은 돈으로 마련하기보다 예산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학습

○ (자료의 지속적인 개선) 학생들의 금융생활과 교사의 수업 경험을 반영하여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대화를 읽고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스 시어터(Readers Theater) 등 다양한 활동을 도입함.

< 다양한 세션 발표 및 활동들 >



나. 포스터 세션 및 전시 부스

□ FiCycle의 자료 소개

○ 수학과 개인금융교육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실제 금융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 대수학・확률・통계 등의 수학적 개념을 저축・투자・대출 등 개인금융 주제와 연계하고, 복리 계산, 순자산 분석, 금융상품 비교 등 실생활 중심의 학습 활동을 제공함.

- 교사용 수업안과 학생 활동지 등을 제공하며, 금융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자료 소개

○ 미국의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GDP, 개인소득, 소비지출 등 경제지표와 이를 활용한 경제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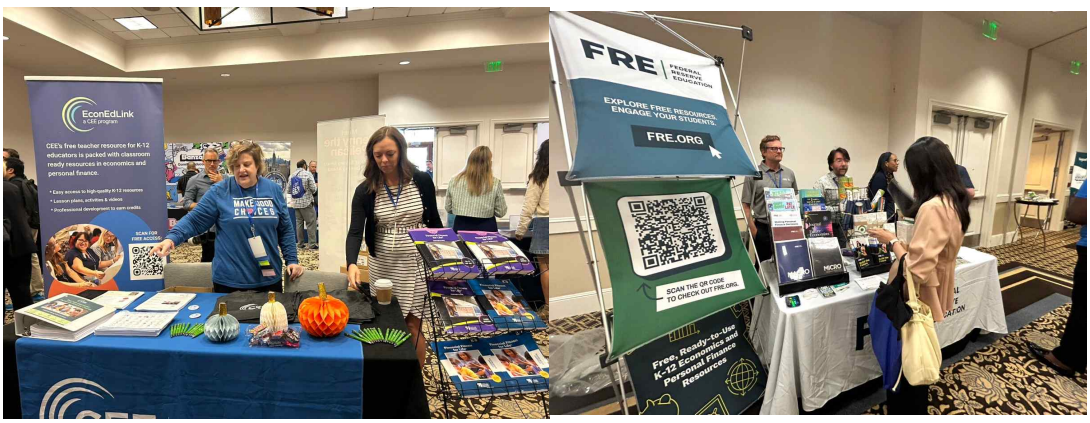
- 국가·지역·산업별 경제통계를 조회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 도구와 함께 GDP 비교,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 수준 분석 등을 주제로 한 학생 활동지와 교사용 수업안,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현상을 해석하는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FRE(Federal Reserve Education)의 자료 소개

○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운영하는 경제·금융교육 플랫폼으로, 경제 개념 학습과 수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갖추고 있음.

-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서 개발한 ‘Core Concept Cards’는 주요 경제 개념을 카드별로 정리한 자료임. 이 외에도 학생들의 사전 이해도를 확인하거나 수업 후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Entrance Ticket’과 ‘Exit Ticket’ 등의 활동 자료를 제공함.

< 전시 부스 전경 >



Ⅲ. 시사점

□ 미국 경제교육 전문기관인 SDCEE, CCEE와의 면담 및 CEE 연차총회 참석을 통해 미국 경제·금융 교육 운영 현황과 주요 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KDI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함.

○ 미국 전역의 교사와 경제교육 전문가, 연방준비은행 및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와 수업 경험을 공유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음을 파악함.

□ 주요 세션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토론하는 과정을 강조함.

○ 신용카드 사용 여부 판단, 창업 및 투자 시뮬레이션, 가치관에 따른 소비 선택 등 다양한 수업 사례에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그 이유와 결과를 검토하도록 구성함.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판단 근거를 질문하고 서로 다른 선택을 비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이는 체험·활동 중심 교육에서 활동 자체뿐 아니라 선택의 근거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경제 개념과 연결하여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줌. KDI에서 운영 중인 체험·활동 중심 교육에서도 활동 후 토론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습자가 경제 개념을 활용해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SDCEE와의 면담 및 주요 세션을 통해 개인금융교육에서 경제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 금융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함.

○ SDCEE는 개인금융교육에서 경제학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며, 금융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주요 세션에서도 소비·저축·투자 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소개됨.

○ 금융 지식을 전달하거나 특정한 금융 행동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비교하고 위험과 미래의 결과

를 검토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경제학적 사고를 실제 금융생활의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청소년의 금융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도입 등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사 지원 등 경제교육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주요 세션과 기관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인물과 일상생활 사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체험·토론·시뮬레이션 중심의 교수·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확인함. 특히 CCEE는 개인금융교육 과정인 CAPFIT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진도표와 교사용 지도서를 제공하여 교사의 수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필라델피아 연준 역시 교사 연수와 교육자료 개발 및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KDI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사의 수업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교사의 수업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금융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연령과 지식수준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생활 경험 및 상황을 고려한 교육이 중요함.

○ 중학생 대상 가치관 탐색과 소비 의사결정 활동, 고등학생 대상 예산관리 및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 등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한 교육 사례를 확인함. SDCEE의 이민자 대상 경제·금융교육 경험에서도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생활 환경,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을 고려한 교육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는 한편, 정해진 답을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